02

2014년 교통사고의 추이

제1절 교통사고의 추세
제2절 교통사고 현황
제3절 교통사고 원인 분석
제4절 교통사고 피해 현황
제5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의 추세

1960, 1970년대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급증했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1990년대 이후 다소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다소 줄어들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수가 1.35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감소 추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각각 연평균 3.4%, 6.5%씩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그간 우리 국민들의 질서의식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2-1 교통여건과 교통사고 추이

(단위: 천대, 천명, 명, 건,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자동차		14,934	15,396	15,895	16,428	16,794	17,325	17,941	18,437	18,870	19,400	20,118	3.0
인 구		48,199	48,294	48,497	48,456	48,607	48,746	48,875	48,989	50,004	50,220	50,424	0.5
자동차 대당인구		3.2	3.1	3.1	2.9	2.8	2.8	2.7	2.6	2.6	2.6	2.5	-2.4
사고건수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0.1
사고사망자		6,563	6,376	6,327	6,166	5,870	5,838	5,505	5,229	5,392	5,092	4,762	-3.2
치사율		3.0	3.0	3.0	2.9	2.7	2.5	2.4	2.4	2.4	2.4	2.1	-3.5
부상자		346,987	342,233	340,229	335,906	338,962	361,875	352,458	341,391	344,565	328,711	337,497	-0.3
인구 10만명당	사고건수	458	443.5	440.7	436.8	444	475.9	464.2	452.6	447.3	428.8	443.3	-0.3
	사망자	13.6	13.2	13	12.7	12.1	12	11.3	10.7	10.8	10.1	9.4	-3.6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	132.5	112.9	109.7	105.7	105.9	111.4	105.8	101.2	118.5	111.0	93.7	-3.4
	사망자	3.9	3.4	3.2	3.1	2.9	2.8	2.6	2.4	2.9	2.6	2.0	-6.5

※ 자동차 대수에서 이륜차는 제외

그러나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2-2 OECD회원국 교통사고 통계(2012년 기준)

구분 / 국가	인 구 (천명)	자동차 보유대수 (천대)[1]	국토면적 (km^2)	1인당 GDP[2] (US$)	도로연장 (km)
호주	22,724	16,742	7,741,220	37,907	900,082
오스트리아	8,426	5,892	83,880	37,402	124,588
벨기에	11,128	6,921	30,530	33,846	154,575
캐나다 [3]	34,880	22,285[a]	9,984,670	37,466	1,408,800[a]
칠레 [3]	17,403	2,784[e]	756,100	16,401	77,764[b]
체코	10,509	5,724	78,870	24,520	55,742
덴마크	5,592	2,916	43,090	32,976	73,929
에스토니아 [3]	1,329	712[c]	45,230	19,282	58,412[b]
핀란드	5,413	3,837	338,420	32,165	78,109
프랑스 [3]	63,519	41,209	549,190	31,082	1,028,446[b]
독일	81,932	51,735	357,130	35,723	688,243
그리스 [3]	11,090	8,070	131,960	20,464	116,960[b]
헝가리 [3]	9,920	3,598	93,030	17,747	199,567[b]
아이슬란드 [3]	319[a]	263	103,000	37,544	12,862[b]
아일랜드 [3]	4,585	2,425[a]	70,280	37,581	96,424[d]
이스라엘	7,911	2,761	22,070	29,402	18,566
이탈리아 [3]	60,916	49,192	301,340	26,920	487,700[g]
일본	127,515	82,993	377,960	31,841	1,214,917
대한민국	50,004	22,602	100,150	31,016	105,931
룩셈부르크	531	403	2,590	66,857	2,899
멕시코 [3]	117,054	–	1,964,380	13,413	371,936[b]
네덜란드	16,755	9,573	41,540	38,498	137,804
뉴질랜드	4,433	3,227	267,710	26,902	94,160
노르웨이 [3]	5,019	3,503	323,790	47,246	93,509[b]
폴란드	38,534	23,775	312,680	18,677	406,122
포르투갈 [3]	10,515	5,775	92,090	21,403	82,900
슬로바키아 [3]	5,408	1,801[e]	49,040	21,841	43,916[b]
슬로베니아	2,057	1,310	20,270	24,512	20,189
스페인 [3]	46,147	31,203	505,600	26,454	667,064[e]
스웨덴	9,519	5,592	450,300	36,297	219,862
스위스 [3]	7,912a	5,605	41,280	42,526	71,519
터키 [3]	75,176	15,096[b]	783,560	13,953	367,263[b]
영국	63,705	35,501	243,610	34,777	420,677
미국	313,874	265,647	9,831,510	45,665	6,586,610

주 : 1) 자동차에 moped/mofa(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포함.
2)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한 1인당 GDP임.
3) a-2011년, b-2010년, c-2009년, d-2008년, e-2007년, f-2006년, g-2005년

자료 : 1) 인구, 자동차, 도로연장 : http://internationaltransportforum.org/IRTADUsers/Vehicles.aspx, 2014.7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헝가리 : 국토교통부, OECD국가별도로현황 보도자료(13.5.29) 참조
2) 1인당 GDP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SPCUBE

1.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1,000세대당 교통사고

2014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2004년 13.6명의 30.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1,000세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04년 0.4명에서 2014년 0.2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4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2004년 3.9명에 비해 49.0%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3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1,000세대당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고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사고 (건)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1,000 세대당	사망 (명)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1,000 세대당	부상 (명)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	1,000 세대당
2004년	220,755	458	132.5	12.7	6,563	13.6	3.9	0.4	346,987	719.9	208.2	20
2005년	214,171	443.5	112.9	12	6,376	13.2	3.4	0.4	342,233	708.6	180.5	19.2
2006년	213,745	440.7	109.7	11.7	6,327	13	3.2	0.3	340,229	701.5	174.6	18.6
2007년	211,662	436.8	105.7	11.3	6,166	12.7	3.1	0.3	335,906	693.2	167.8	18
2008년	215,822	444	105.9	11.4	5,870	12.1	2.9	0.3	338,962	697.4	166.3	17.8
2009년	231,990	475.9	111.4	12	5,838	12	2.8	0.3	361,875	742.4	173.7	18.8
2010년	226,878	464.2	105.8	11.4	5,505	11.3	2.6	0.3	352,458	721.1	164.3	17.7
2011년	221,711	452.6	101.2	11.1	5,229	10.7	2.4	0.3	341,391	696.9	155.8	17
2012년	223,656	447.3	99	11.1	5,392	10.8	2.4	0.3	344,565	689.1	152.5	17.1
2013년	215,354	428.8	93	10.5	5,092	10.1	2.2	0.3	328,711	654.6	142	16.1
2014년	223,552	433.3	93.7	10.8	4,762	9.4	2.0	0.2	337,497	669.3	141.5	16.3

※ 2005년부터 자동차 등록대수는 건설기계, 농기계 포함

그림 2-1 교통사고 현장

2. 지역별(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던 것이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교통사고 건수는 2012년에 비해 3.7% 감소하였고, 지역별로도 제주(11.2%), 울산(1.7%)의 지역에서는 증가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율
계	214,171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100	3.8
서울	38,528	38,237	39,360	41,643	44,259	41,601	40,393	40,774	39,373	40,678	17.6	3.3
부산	12,083	13,053	10,304	12,302	14,278	14,052	14,061	14,909	12,773	12,880	5.7	0.8
대구	12,035	12,878	13,339	13,553	14,243	14,438	14,519	14,292	13,558	14,417	6.1	6.3
인천	11,973	11,223	10,821	10,972	11,374	10,642	10,424	10,048	9,215	9,060	4.1	-1.7
광주	7,775	8,001	7,881	8,231	9,188	8,849	8,284	8,560	8,007	8,167	3.6	2.0
대전	5,342	5,421	5,366	5,484	5,948	5,828	5,983	5,571	5,408	5,837	2.4	7.9
울산	4,312	4,499	4,639	5,140	5,211	5,017	4,866	4,894	4,977	5,131	2.2	3.1
경기	43,296	41,640	41,076	39,727	42,951	43,519	43,247	44,375	43,579	47,840	19.5	9.8
강원	8,700	8,622	8,884	8,780	9,521	9,047	9,224	8,975	8,546	8,617	3.8	0.8
충북	7,670	7,903	8,030	8,393	8,640	8,652	8,732	8,684	8,573	9,009	3.8	5.1
충남	8,682	8,489	8,627	8,551	8,817	9,299	8,887	8,560	8,406	8,910	3.8	6.0
전북	9,958	9,567	9,889	9,782	10,721	10,523	10,301	10,035	9,512	9,632	4.3	1.3
전남	10,522	10,706	10,591	10,502	11,309	11,041	10,138	10,250	10,119	10,154	4.5	0.3
경북	16,978	17,003	16,423	15,626	16,953	16,660	15,475	15,727	15,391	15,448	6.9	0.4
경남	13,151	13,227	13,296	13,954	14,947	14,093	13,718	14,133	13,615	13,288	6.1	-2.4
제주	3,166	3,276	3,136	3,182	3,630	3,617	3,459	3,869	4,302	4,484	1.9	4.2
고속	4,113	3,943	3,661	3,610	3,748	3,924	3,800	3,550	3,231	3,583	1.4	10.9

※ 광주·대전지방경찰청은 2007년 7월 2일에 개청하여 개청 이후 통계만 집계하고, 2007년 7월 1일까지의 통계는 전남·충남지방경찰청으로 집계함
※ 고속도로순찰대의 통계는 지방경찰청에 이미 포함된 것을 별도 집계함

2014년도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발생분포를 살펴보면 경기가 47,840건으로 전국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18.2%, 경북 6.9%, 대구 6.4%, 경남 5.9%, 부산 5.8%, 전남 4.5%, 전북 4.3% 순으로 경기, 서울, 경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경기가 전체 사망자의 18.2%로 가장 많고, 경북 10.6%, 전남·경남 9.1%, 충남 8.8%, 서울 7.3%로 나타났으며, 부상자는 경기 20.6%, 서울 17.2%, 경북 7.2%, 부산 5.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사망자의 20.6%, 부상자의 41.1%는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한 수도권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지방경찰청별 인명 피해 현황**

(단위: 명, %)

지방청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율
계	사망	6,376	6,327	6,166	5,870	5,838	5,505	5,229	5,392	5,092	4,762	100	-6.5
	부상	342,233	340,229	335,906	348,962	361,875	352,458	341,391	344,565	328,711	337,497	100	2.7
서울	사망	481	447	445	477	495	424	430	419	371	399	8.4	7.5
	부상	57,232	56,373	57,393	59,797	63,439	59,595	57,479	58,459	56,619	57,028	16.9	0.7
부산	사망	291	282	278	246	276	257	244	251	232	185	3.9	-20.3
	부상	18,368	19,837	15,461	28,246	20,707	20,404	20,242	21,607	17,854	18,378	5.4	2.9
대구	사망	213	210	190	203	198	181	152	187	157	173	3.6	10.2
	부상	17,432	19,105	19,356	19,629	20,459	21,124	21,086	20,588	19,441	20,541	6.1	5.7
인천	사망	223	198	182	197	203	223	175	214	172	161	3.4	-6.4
	부상	19,067	17,615	16,951	16,969	17,854	16,490	16,017	15,292	13,977	13,811	4.1	-1.2
광주	사망	-	-	80	138	114	120	110	112	110	101	2.1	-8.2
	부상	-	-	6,452	13,533	14,676	14,523	13,372	13,800	13,025	13,218	3.9	1.5
대전	사망	-	-	63	106	122	106	105	121	87	97	2.0	11.5
	부상	-	-	4,494	8,673	9,554	9,009	8,993	8,483	8,128	8,716	2.6	7.2
울산	사망	107	112	103	97	106	102	99	101	119	102	2.1	-14.3
	부상	6,421	6,998	7,171	7,782	7,815	7,309	7,288	7,375	7,219	7,493	2.2	3.8
경기	사망	1,176	1,203	1,193	1,069	1,056	983	970	1,021	928	885	18.6	-4.6
	부상	73,081	69,493	68,446	64,995	69,986	69,874	68,384	70,216	67,765	73,347	21.7	8.2
강원	사망	324	310	345	301	289	268	265	280	244	226	4.7	-7.4
	부상	15,674	15,348	15,974	15,403	16,604	15,744	15,675	15,598	14,557	14,342	4.2	-1.5
충북	사망	622	326	289	322	269	270	270	283	281	253	5.3	-10.0
	부상	7,670	13,082	13,287	14,097	14,524	14,237	14,274	14,596	14,409	14,941	4.4	3.7
충남	사망	705	700	600	530	512	491	451	433	448	433	9.1	-3.3
	부상	23,601	23,099	18,834	14,665	14,739	15,231	14,647	14,093	13,604	13,923	4.1	2.3
전북	사망	457	446	428	412	413	422	361	367	367	333	7.0	-9.3
	부상	16,943	15,804	16,954	16,367	17,598	17,036	16,837	16,178	15,165	15,316	4.5	1.0
전남	사망	753	664	674	614	497	457	416	458	462	427	9.0	-7.6
	부상	30,860	29,773	31,147	24,363	19,273	18,843	17,123	17,348	16,913	16,715	5.0	-1.2
경북	사망	775	752	769	755	706	630	608	590	542	492	10.3	-9.2
	부상	27,108	26,784	26,822	25,567	26,497	24,464	24,166	24,515	23,591	23,769	7.0	0.8
경남	사망	533	553	542	501	519	470	467	463	465	403	8.5	-13.3
	부상	20,230	20,185	20,384	20,434	22,474	21,201	20,700	20,691	20,029	19,303	5.7	-3.6
제주	사망	91	108	108	100	63	101	106	92	107	92	1.9	-14.0
	부상	5,083	4,916	5,122	4,769	5,676	5,374	5,108	5,726	6,415	6,656	2.0	3.8
고속	사망	502	402	467	420	397	389	282	371	298	273	5.7	-8.4
	부상	12,855	10,801	10,123	8,984	9,636	9,669	9,065	8,333	7,698	8,578	2.5	11.4

※ 광주·대전지방경찰청은 2007년 7월 2일에 개청하여 개청 이후 통계만 집계하고, 2007년 7월 1일까지의 통계는 전남·충남지방청으로 집계함
※ 고속도로순찰대의 통계는 지방경찰청에 이미 포함된 것을 별도 집계함

3. 뺑소니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는 비록 전체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다른 교통법규위반 사고보다 죄질이 중하고 범인검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높아 교통안전확보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2014년도에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모두 8,771건으로 전체사고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7명이 사망하고 13,622명이 부상당하였다.

지난 10년간 뺑소니사고 건수가 전체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전체 교통사고의 7.7%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에는 3.9%를 차지했다.

1997년 신설된 뺑소니 수사전담반은 뺑소니 검거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4년에는 90.6%라는 높은 검거율을 나타냈다.

표 2-6 **뺑소니 사고 건수의 검거 및 피해 추세**

(단위: 건, %)

구 분	교통사고 건수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검거건수	
			증감율	전체 사고 대비 점유율				검거율
2003	240,832	18,440	-0.6	7.7	472	27,035	14,428	78.2
2004	220,755	16,346	-11.4	7.4	387	24,075	12,153	74.3
2005	214,171	14,655	-10.3	6.8	370	22,351	10,744	73.3
2006	213,745	14,480	-1.2	6.8	360	22,660	10,791	74.5
2007	211,662	12,684	-12.4	6.0	340	20,057	10,264	80.9
2008	215,822	11,613	-8.4	5.4	297	18,373	10,218	88.0
2009	231,990	12,666	9.1	5.5	298	20,275	11,219	88.6
2010	226,878	11,845	-6.5	5.2	279	19,016	11,029	93.1
2011	221,711	11,409	-3.7	5.1	284	17,951	10,681	93.6
2012	223,656	11,452	0.4	5.1	234	18,261	10,699	93.4
2013	215,354	9,604	-16.1	4.5	219	15,247	8,693	90.5
2014	223,552	8,771	-8.7	3.9	207	13,622	7,950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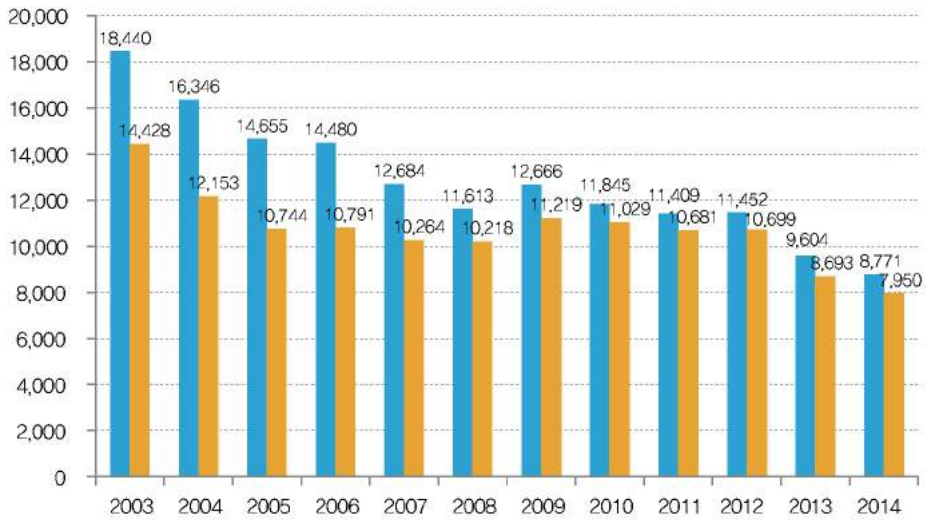

그림 2-2 뺑소니 사고의 건수 및 검거추세

4. 차종별 교통사고

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차종별로 구분하면, 승용차가 66.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12.6%, 승합차 7.0%, 이륜차 5.3%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승용차 교통사고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승합차와 화물차 사고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차종별 교통사고 건수

(단위: 건, %)

구 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기 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4	220,755	139,675	63.3	23,214	10.5	38,837	17.6	1,523	0.7	6,635	3.0	10,871	4.9
2005	214,171	138,815	64.8	21,505	10	35,102	16.4	1,291	0.6	5,596	2.6	11,862	5.5
2006	213,745	142,430	66.6	17,644	8.3	33,692	15.8	1,149	0.5	7,588	3.6	11,242	5.3
2007	211,662	141,806	67	15,872	7.5	31,578	14.9	1,137	0.5	8,959	4.2	12,310	5.8
2008	215,822	143,984	66.7	15,918	7.4	30,366	14.1	1,125	0.5	10,629	4.9	13,800	6.4
2009	231,990	156,101	67.3	16,921	7.3	31,308	13.5	1,081	0.5	11,522	5.0	15,057	6.5
2010	226,878	153,396	67.6	16,670	7.3	30,281	13.3	1,035	0.5	10,950	4.8	14,546	6.4
2011	221,711	149,864	67.6	16,236	7.3	29,143	13.1	980	0.4	10,170	4.6	15,318	6.9
2012	223,656	151,191	68.2	16,408	7.4	29,011	13.1	999	0.5	10,415	4.7	15,632	7.1
2013	215,354	144,456	67.1	15,545	7.2	27,650	12.8	865	0.4	10,433	4.8	16,405	7.6
2014	223,552	148,070	66.2	15,623	7.0	28,250	12.6	879	0.4	11,758	5.3	18,972	8.5

※ 이륜차는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함

5.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56.5%가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며, 신호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중앙선 침범 등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2-8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건수

(단위: 건, %)

법규위반 \ 연도		2009	구성비	2010	구성비	2011	구성비	2012	구성비	2013	구성비	2013	구성비
총 계		231,990	100.0	226,878	100.0	221,711	100.0	223,656	100.0	215,354	100.0	223,552	100.0
운전자법규위반	소 계	231,962	100.0	226,856	100.0	221,692	100.0	223,633	100.0	215,330	100.0	223,543	100.0
	신호위반	27,582	11.9	25,963	11.4	24,504	11.1	25,307	11.3	24,425	11.3	25,702	11.5
	중앙선침범	14,327	6.2	14,071	6.2	12,931	5.8	13,018	5.8	12,324	5.7	12,092	5.4
	차선위반(진로변경)	2,741	1.2	2,927	1.3	2,808	1.3	2,936	1.3	2,928	1.4	3,172	1.4
	우선권양보불이행	101	0.0	63	0.0	25	0.0	19	0.0	14	0.0	15	0.0
	과 속	422	0.2	403	0.2	403	0.2	377	0.2	427	0.2	515	0.2
	부당한회전	1,771	0.8	1,538	0.7	1,510	0.7	1,440	0.6	1,435	0.7	1,407	0.6
	안전거리미확보	24,554	10.6	23,126	10.2	22,315	10.1	22,275	10.0	20,106	9.3	20,678	9.3
	진로양보불이행	261	0.1	194	0.0	53	0.0	53	0.0	47	0.0	47	0.0
	앞지르기방법위반	94	0.0	74	0.0	82	0.0	89	0.0	69	0.0	94	0.0
	앞지르기금지위반	358	0.2	328	0.1	364	0.2	332	0.1	335	0.2	335	0.1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7,145	7.4	16,206	7.1	15,172	6.8	14,721	6.6	14,407	6.7	14,341	6.4
	직진우회전진행방해	4,952	2.1	5,494	2.4	5,880	2.7	5,605	2.5	5,537	2.6	5,995	2.7
	보행자보호의무위반	6,343	2.7	6,542	2.9	6,890	3.1	7,106	3.2	6,816	3.2	7,231	3.2
	긴급차피양의무위반	–	0.0	1	0.0	1	0.0	–	0.0	2	0.0	2	0.0
	일시정지위반	419	0.2	427	0.2	478	0.2	458	0.2	426	0.2	542	0.2
	안전운전불이행	126,340	54.5	125,082	55.1	123,744	55.8	125,391	56.1	121,402	56.4	126,329	56.5
	난폭운전	–	0.0	–	0.0	–	0.0	–	0.0	–	0.0	5	0.0
	과 로	2	0.0	5	0.0	0	0.0	5	0.0	2	0.0	2	0.0
	철길건널목통과방법	12	0.0	8	0.0	8	0.0	7	0.0	2	0.0	5,039	2.3
	기 타	4,538	2.0	4,404	1.9	4,524	2.0	4,494	2.0	4,626	2.1	9	0.0
정비불량		16	0.0	8	0.0	11	0.0	14	0.0	14	0.0	14	0.0
보행자과실		12	0.0	14	0.0	8	0.0	9	0.0	10	0.0	10	0.0

※ 법규위반항목에서 두가지 이상의 위반이 중복되는 경우 당해사고의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위반으로 작성됨
※ 무면허·음주 교통사고는 어떤 형태이든 별도의 법규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1997년도부터 법규위반항목에서 제외함

6. 고속도로 교통사고

2014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583건이며, 이로 인하여 273명이 사망하였고, 8,578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25명(8.4%) 감소하였으나, 사고건수는 352건(10.9%), 부상자 수는 890명(11.4%) 증가하였다

그림 2-3 고속도로 교통사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사고 상황을 보면 사고건수는 2004년 4,941건이던 것이 2014년에는 3,583건으로 감소하였고, 부상은 12,855명에서 8,578명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는 502명에서 273명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10년간 고속도로의 사고발생 연평균 증감율은 -3.2%로써 전국 교통사고 연평균 증감율 -0.1%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사망자의 10년간 연평균 증감율은 -5.9%, 부상자 연평균 증감율은 -4.0%로 나타났다.

표 2-9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증감율	전체사고에 대한 구성비	1㎞당		증감율	전체사망자에 대한 구성비		증감율	전체부상자에 대한 구성비
2004	4,941	-15.5	2.2	1.7	502	-4.6	7.6	12,855	-11.3	3.7
2005	4,113	-16.8	1.9	1.4	402	-19.9	6.3	10,801	-16	3.2
2006	3,943	-4.1	1.8	1.3	467	16.2	7.4	10,123	-6.3	3
2007	3,661	-7.2	1.7	1.1	420	-10.1	6.8	8,984	-11.3	2.7
2008	3,610	-1.4	1.7	1.0	409	-2.6	7	9,358	4.2	2.8
2009	3,748	3.8	1.6	1.0	397	-2.9	6.8	9,636	3	2.7
2010	3,924	4.7	1.7	1.0	389	-2	7.1	9,669	0.3	2.7
2011	3,800	-3.2	1.7	1.0	282	-27.5	5.4	9,065	-6.2	2.7
2012	3,550	-10.5	1.6	0.9	371	31.6	6.9	8,333	-8.1	2.4
2013	3,231	-9.0	1.5	0.8	298	-19.7	5.9	7,698	-7.6	2.3
2014	3,583	10.9	1.6	0.9	273	-8.4	5.7	8,578	11.4	2.5

교통사고 현황

1.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2014년도 교통사고 건수를 지방경찰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47,840건(21.4%)을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0,678건(18.2%), 경북 15,448건(6.9%), 대구 14,417건(6.4%), 부산 12,880건(5.8%), 경남 13,288건(5.9%), 전남 10,154건(4.5%)의 순이었다.

표 2-10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및 피해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지방청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증감율	사망사고		구성비	증감율	치사율		중상	경상	부상신고
계	223,552	100	3.8	4,583	4,762	100	-6.5	2.1	337,497	93,047	223,375	21,075
서울	40,678	18.2	3.3	385	399	8.4	7.5	1	57,028	14,806	36,394	5,828
부산	12,880	5.8	0.8	178	185	3.9	-20.3	1.4	18,378	6,268	10,516	1,594
대구	14,417	6.4	6.3	172	173	3.6	10.2	1.2	20,541	5,158	13,795	1,588
인천	9,060	4.1	-1.7	153	161	3.4	-6.4	1.8	13,811	3,958	9,246	607
광주	8,167	3.7	2	99	101	2.1	-8.2	1.2	13,218	1,757	11,095	366
대전	5,837	2.6	7.9	96	97	2.0	11.5	1.7	8,716	2,181	6,355	180
울산	5,131	2.3	3.1	97	102	2.1	-14.3	2	7,493	2,265	4,730	498
경기	47,840	21.4	9.8	851	885	18.6	-4.6	1.8	73,347	19,570	48,881	4,896
강원	8,617	3.9	0.8	221	226	4.7	-7.4	2.6	14,342	3,346	10,477	519
충북	9,009	4.0	5.1	241	253	5.3	-10	2.8	14,941	4,489	9,953	499
충남	8,910	4.0	6	415	433	9.1	-3.3	4.9	13,923	4,836	8,642	445
전북	9,632	4.3	1.3	319	333	7.0	-9.3	3.5	15,316	3,692	11,315	309
전남	10,154	4.5	0.3	405	427	9.0	-7.6	4.2	16,715	3,874	12,159	682
경북	15,448	6.9	0.4	474	492	10.3	-9.2	3.2	23,769	7,726	14,846	1,197
경남	13,288	5.9	-2.4	391	403	8.5	-13.3	3	19,303	7,420	10,716	1,167
제주	4,484	2.0	4.2	86	92	1.9	-14	2.1	6,656	1,701	4,255	700
고속*	3,583	1.6	10.9	240	273	5.7	-8.4	7.6	8,578	2,436	5,704	438

※ 고속도로순찰대의 통계는 지방경찰청에 이미 포함된 것을 별도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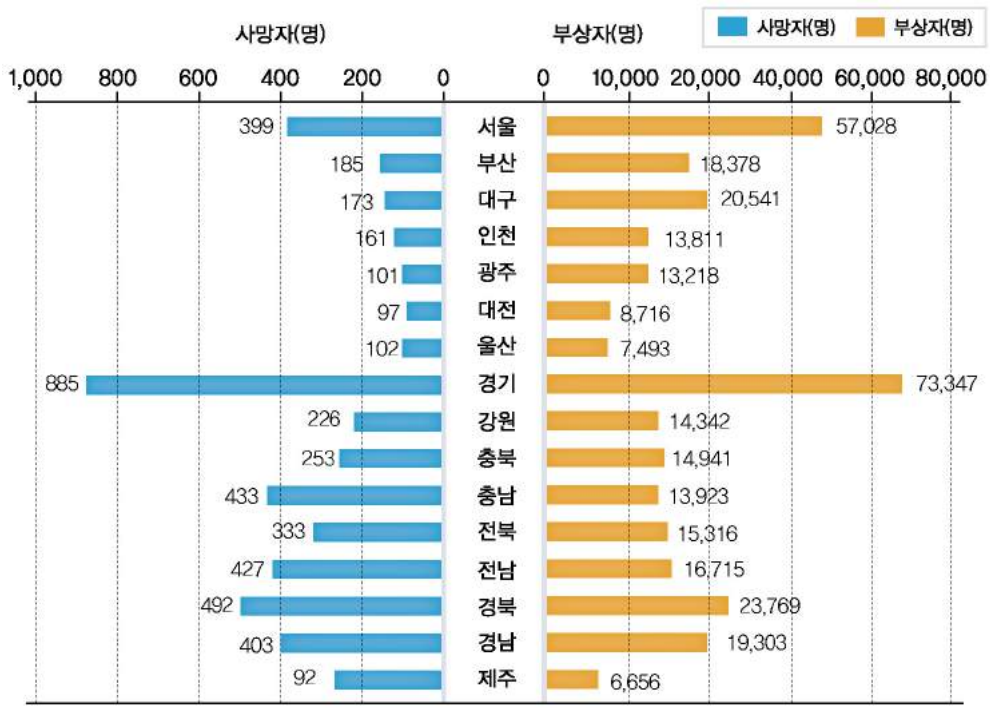

그림 2-4 지방청별 사상자비교

사망자 수에 있어서는 경기가 전국 사망자의 18.6%를 차지하는 885명에 이르러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10.3%에 492명, 충남이 9.1%에 433명, 전남이 9.0%에 42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상자에 있어서도 경기가 73,3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이 57,028명, 경북 23,769명, 대구 20,541명, 경남 19,303명 순이나, 부상신고의 경우에는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와 자동차 보유

(단위: 건, 명, 대)

구분 / 지방청	사고건수	사망	부상	인구 10만명당			인구	자동차 10,000대당			자동차
				사고건수	사망	부상		사고건수	사망	부상	
계	223,552	4,762	337,497	443.3	9.44	669.3	50,423,955	93.7	2.00	141.5	23,853,034
서울	40,678	399	57,028	411.3	4.0	576.6	9,890,661	115.9	1.14	162.4	3,511,201
부산	12,880	185	18,378	377.5	5.4	538.6	3,411,930	94.1	1.35	134.3	1,368,153
대구	14,417	173	20,541	586.1	7.0	835.0	2,459,901	117.3	1.41	167.2	1,228,664
인천	9,060	161	13,811	317.0	5.6	483.2	2,858,348	67.5	1.20	102.9	1,342,742
광주	8,167	101	13,218	538.7	6.7	871.9	1,515,992	126.5	1.56	204.8	645,520
대전	5,837	97	8,716	377.6	6.3	563.9	1,545,717	87.4	1.45	130.5	668,026
울산	5,131	102	7,493	450.8	9.0	658.3	1,138,225	86.8	1.73	126.8	591,142

구분 / 지방청	사고건수	사망	부상	인구 10만명당			인구	자동차 10,000대당			자동차
				사고건수	사망	부상		사고건수	사망	부상	
경기	47,840	885	73,347	389.6	7.2	597.3	12,280,678	91.6	1.69	140.5	5,221,294
강원	8,617	226	14,342	574.1	15.1	955.5	1,501,041	104.3	2.74	173.7	825,852
충북	9,009	253	14,941	577.9	16.2	958.4	1,558,912	101.6	2.85	168.4	887,116
충남	8,910	433	13,923	402.7	19.6	629.3	2,212,590	67.5	3.28	105.5	1,320,167
전북	9,632	333	15,316	536.0	18.5	852.3	1,797,031	91.5	3.16	145.4	1,053,236
전남	10,154	427	16,715	577.5	24.3	950.6	1,758,340	87.0	3.66	143.2	1,167,238
경북	15,448	492	23,769	585.1	18.6	900.2	2,640,441	89.5	2.85	137.7	1,726,293
경남	13,288	403	19,303	406.0	12.3	589.8	3,273,079	71.5	2.17	103.8	1,859,463
제주	4,484	92	6,656	771.7	15.8	1,145.5	581,069	102.6	2.11	152.3	436,927

※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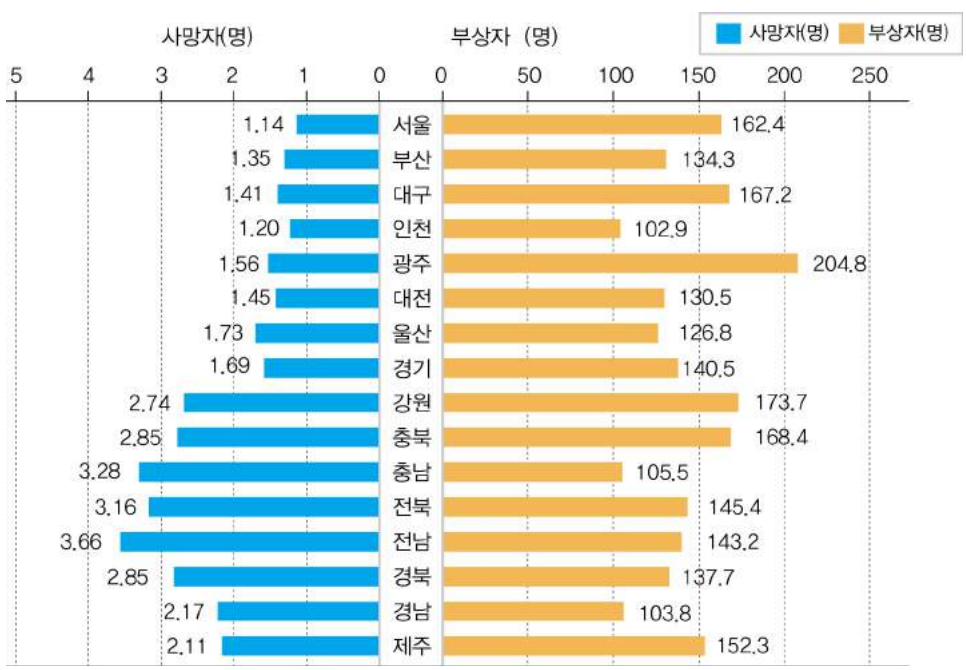

그림 2-5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의 지역별 비교**

이상과 같이 자동차 보유대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근거로 산출한 지방청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의 대도시는 1~2명 수준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보다 그 수치가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와 비교할 때 관할 면적이 넓어, 도로연장 거리가 길고 구조적으로 위험한 도로가 많으며, 농어촌 지역의 도로에 보행자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

우가 많은 점 등 도로환경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형 교통사고 현황

대형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사망자 3명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2014년에는 총 87건의 대형사고가 발생, 86명이 사망하고 1,833명이 부상당하였다. 전년도와 비교 시 사고건수는 7건, 사망자수는 15명, 부상자수는 176명이 각각 감소하였다.

대형교통사고를 도로별 분석하면 특별·광역시는 전체의 23.0%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고속국도에서·일반국토에서 동일하게 각 18건 20.7%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표 2-12 대형교통사고 현황(도로종류별)

(단위: 건, 명, %)

구 분 / 도로종류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주	야		구성비	주	야		구성비	주	야
계	87	100	53	34	86	100	42	44	1,833	100	1,228	605
일반국도	18	20.7	12	6	27	31.4	13	14	285	15.5	221	64
지 방 도	8	9.2	7	1	9	10.5	9	0	146	8	122	24
특별·광역시도	20	23	8	12	9	10.5	0	9	524	28.6	259	265
시 도	21	24.1	13	8	15	17.4	1	14	466	25.4	364	102
군 도	1	1.1	1	0	1	1.2	1	0	21	1.1	21	0
고속국도	18	20.7	11	7	22	25.6	15	7	388	21.2	238	150
기 타	1	1.1	1	0	3	3.5	3	0	3	0.2	3	0

3. 월별 교통사고 현황

2014년도에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를 월별로 보면 10월 20,760건, 5월이 20,314건으로 전체의 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월 19,8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월이 6.3%로 가장 적었다. 사망자의 경우 11월이 1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월, 9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월이 6.8%로 가장 적었다.

표 2-13 **월별 및 계절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명, %)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계절	월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증감율		구성비	증감율
계		223,552	100	3.8	4,762	100	-6.5	337,497	100	2.7
봄	3	18,420	8.2	5.5	358	7.5	-12.5	27,714	8.2	4.7
	4	18,443	8.2	2.3	341	7.2	-10.3	27,323	8.1	-1.7
	5	20,314	9.1	3.2	398	8.4	-5.2	30,684	9.1	3.4
여름	6	18,530	8.3	1.1	367	7.7	-15.8	27,740	8.2	0.2
	7	19,649	8.8	6.6	407	8.5	-8.3	29,596	8.8	4.3
	8	19,603	8.8	4.9	359	7.5	-12.9	30,633	9.1	4.9
가을	9	19,243	8.6	8.1	445	9.3	3.5	29,052	8.6	7.8
	10	20,760	9.3	4.9	470	9.9	-5.8	31,199	9.2	5.7
	11	19,872	8.9	2.5	476	10.0	-0.6	29,525	8.7	1.9
겨울	12	18,752	8.4	7.1	427	9.0	-7.0	28,202	8.4	5.4
	1	15,905	7.1	-0.7	389	8.2	0.0	24,328	7.2	-3.1
	2	14,061	6.3	-0.9	325	6.8	-3.0	21,501	6.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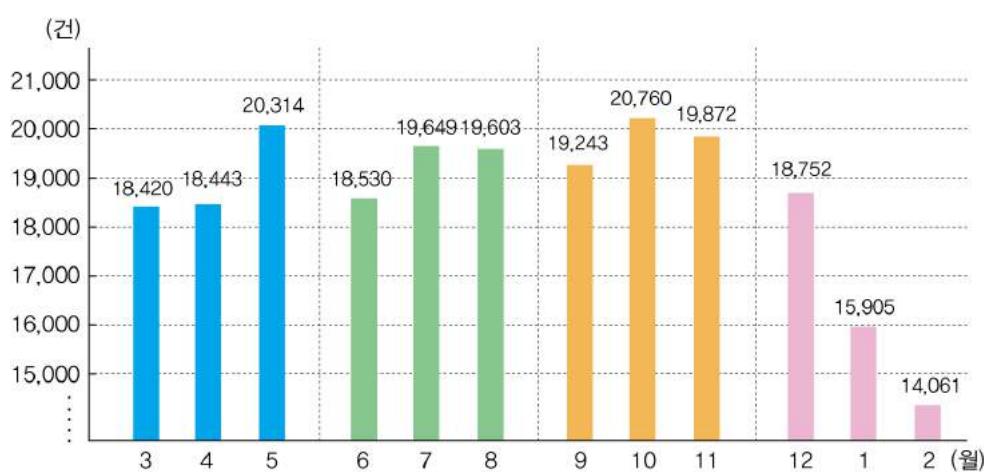

그림 2-6 **월별 및 계절별 교통사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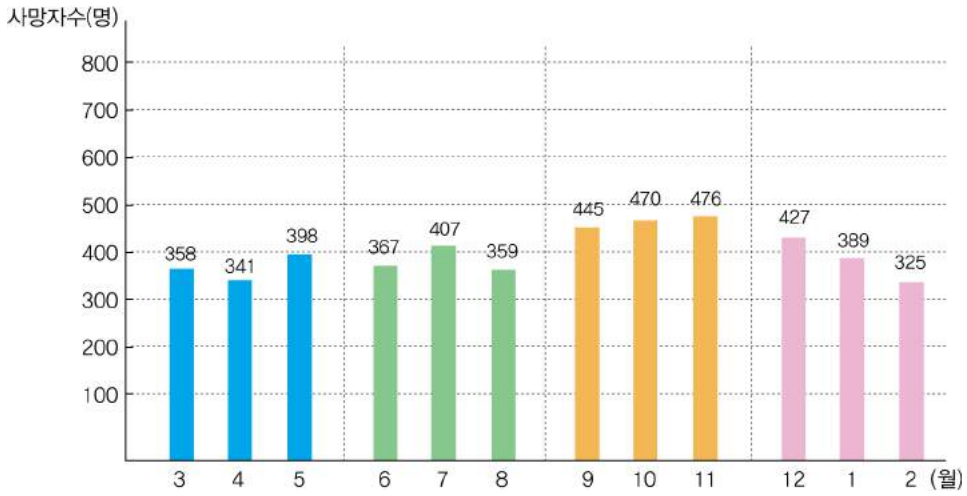

그림 2-7 월별 및 계절별 교통사고 사망비율

4. 음주 및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되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만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24,043건이 발생하여 592명이 사망하였고, 42,772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 사고는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 0.14% 이하 상태에서 38.1%인 9,170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0.15% 이상 0.19% 이하로 26.2%, 0.05% 이상 0.09% 이하 23.1%, 0.20% 이상 0.24% 이하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4 음주운전 교통사고

(단위: 건, 명, %)

구분 / 음주정도		사고건수	구성비	사망자	구성비	부상자	구성비
총 계		223,552	100	4,762	100	337,497	100
음주운전	소 계	24,043	100.0	592	100.0	42,772	12.7
	0.05% 이상 0.09% 이하	5,561	23.1	190	32.1	10,150	23.7
	0.10% 이상 0.14% 이하	9,170	38.1	150	25.3	16,181	37.8
	0.15% 이상 0.19% 이하	6,288	26.2	126	21.3	11,196	26.2
	0.20% 이상 0.24% 이하	2,071	8.6	80	13.5	3,643	8.5
	0.25% 이상 0.29% 이하	490	2.0	29	4.9	824	1.9
	0.30% 이상 0.34% 이하	90	0.4	8	1.4	147	0.3
	0.35% 이상	37	0.2	4	0.7	58	0.1
	측정불응	336	1.4	5	0.8	573	1.3
측정불능		187	0.8	9	1.5	281	0.7
정상운전		199,322	829.0	4,161	702.9	294,444	688.4

※ '측정불능'이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시간 경과 등 상황의 변화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임
※ 구성비율은 음주사고에 대한 구성비율임

한편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되면서도 일반 교통사고 통계에는 별도로 집계되는 지방경찰청별 무면허운전 사고는 경기가 1,564건(21.0%)로 가장 높고, 대전이 166건(2.2%)로 가장 낮았다.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도시 지역보다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5 무면허운전 사고 추이

(단위: 건, 명, %)

구분 / 지방청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수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계	7,435	100	-2.2	305	100	10,682	100
서울	976	13.1	-9.2	9	3.0	1,358	12.7
부산	344	4.6	-10.9	7	2.3	498	4.7
대구	385	5.2	-1.8	21	6.9	531	5.0
인천	267	3.6	-13.9	10	3.3	413	3.9
광주	206	2.8	-16.9	3	1.0	321	3.0
대전	166	2.2	-6.7	7	2.3	260	2.4
울산	208	2.8	-14.4	10	3.3	283	2.6
경기	1564	21.0	6.0	63	20.7	2,379	22.3
강원	241	3.2	-10.4	14	4.6	365	3.4
충북	319	4.3	15.2	12	3.9	443	4.1
충남	482	6.5	6.4	25	8.2	704	6.6

구분 / 지방청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수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전북	313	4.2	5.0	23	7.5	439	4.1
전남	534	7.2	−3.1	42	13.8	733	6.9
경북	687	9.2	−1.4	24	7.9	980	9.2
경남	548	7.4	−5.4	32	10.5	714	6.7
제주	195	2.6	14.0	3	1.0	26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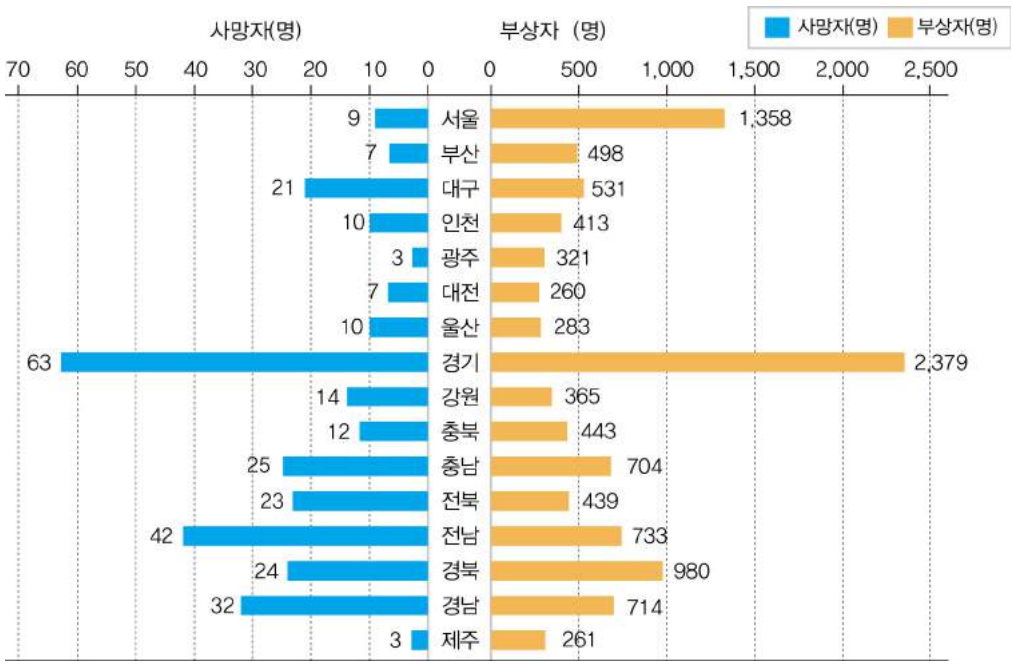

그림 2-8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지역별 비교

교통사고 원인 분석

1. 운전자 요인

교통사고를 요인별로 분류하면 크게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자동차의 정비 불량, 그리고 보행자 과실로 나눌 수 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 불량이나 보행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2014년도의 운전자 법규위반 내용별로는 안전운전불이행이 5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신호위반 11.5%, 안전거리 미확보 9.2%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2014년도의 운전자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상황을 보면 223,552건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4,762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2.1%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515건에 180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35.%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16 운전자의 법규위반 내용별 인명피해

(단위: 건, 명)

구분 / 법규위반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구성비		구성비	치사율		구성비
총 계		223,552	100	4,762	100	2.1	337,497	100
운전자 법규위반	계	223,543	100.0	4,761	100.0	2.1	337,478	100.0
	과 로	25,702	11.5	356	7.5	1.4	42,597	12.6
	과 속	12,092	5.4	385	8.1	3.2	21,156	6.3
	앞지르기방법위반	3,172	1.4	16	0.3	0.5	5,057	1.5
	앞지르기금지위반	15	0.0	0	0.0	0.0	18	0.0
	중앙선침범	515	0.2	180	3.8	35.0	852	0.3
	신호위반	1,407	0.6	22	0.5	1.6	1,881	0.6
	안전거리미확보	20,678	9.2	76	1.6	0.4	36,567	10.8
	일시정지위반	47	0.0	1	0.0	2.1	64	0.0
	부당한회전	94	0.0	1	0.0	1.1	139	0.0
	우선권양보불이행	335	0.1	9	0.2	2.7	560	0.2
	진로양보불이행	14,341	6.4	82	1.7	0.6	22,799	6.8
	안전운전불이행	5,995	2.7	39	0.8	0.7	10,377	3.1
	교차로운행방법위반	7,231	3.2	165	3.5	0.0	7,624	2.3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	0.0	0	0.0	0.0	4	0.0

법규위반 \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구성비		구성비	치사율		구성비
	차로위반(진로변경)	542	0.2	5	0.1	0.9	910	0.3
	직진우회전진행방해	126,329	56.5	3,372	70.8	2.7	181,100	53.7
	철길건널목통과방법	2	0.0	0	0.0	0.0	2	0.0
	기 타	5	0.0	0	0.0	0.0	14	0.0
정비 불량		5,039	2.3	52	1.1	1.0	5,757	1.7
보행자 과실		9	0.0	1	0.0	11.1	1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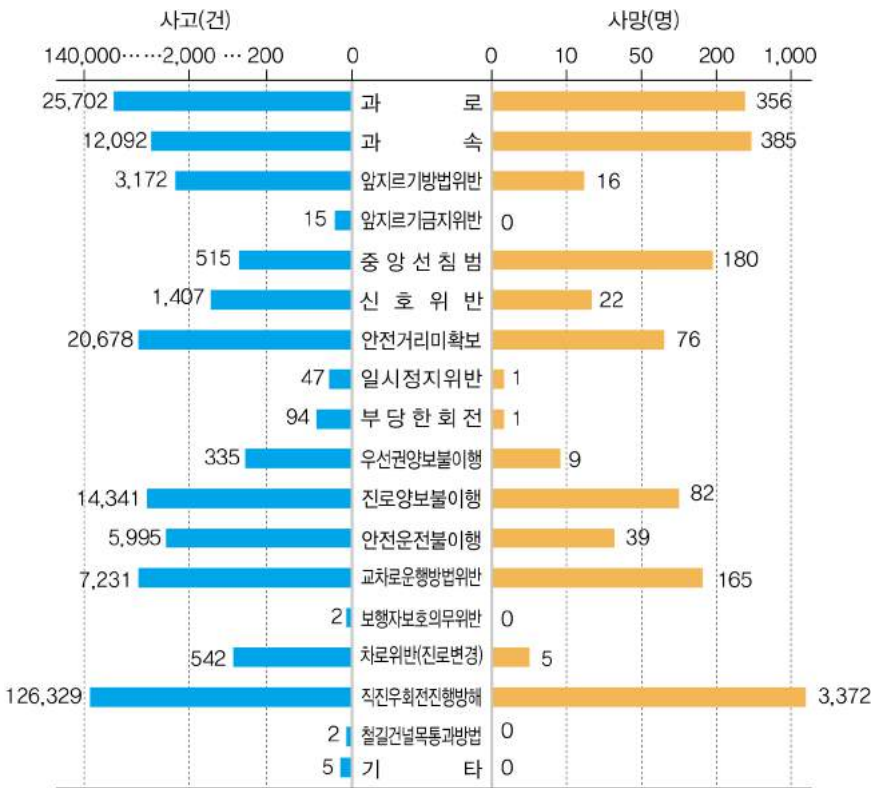

그림 2-9 운전자의 법규위반 내용별 인명피해

2. 자동차 요인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9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없으며 부상자는 19명이었다.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발생건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은 것은 자동차의 제작기술 향상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교통사고 조사시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따라서 자동차 구조 등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의 전문화, 조사 장비의 과학화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17 정비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단위: 건, 명)

연도	사고건수	증감	사망	부상
2004	8	-2	1	10
2005	10	2	1	33
2006	12	2	5	33
2007	7	-5	0	11
2008	9	2	3	18
2009	16	7	1	60
2010	8	-50	1	13
2011	11	37.5	2	24
2012	14	27.3	1	36
2013	14	0.0	0	37
2014	9	-35.7	1	19

3. 도로 등 환경적 요인

교통사고의 원인 중 앞에서 살펴본 운전자 요인과 자동차 요인을 제외한 도로의 여건, 기상 상태, 교통상황 등 여러 교통 여건을 환경적 요인이라 분류한다.

가. 도로 선형별 교통사고

2014년의 교통사고를 도로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92.1%인 205,958건이 직선로에서 발생하여 3,857명이 사망했다. 커브・곡각도로에서는 사고건수의 6.2%인 13,868건이 발생하여

858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커브·곡각도로와 직선로 모두 평지에서 사고비율이 높았으며, 오르막 보다는 내리막에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교통사고 주야별로 살펴보면 주간에는 122,272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54.7%이고, 야간에는 101,280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45.3%에 이르러 사고발생은 주간과 야간이 비슷하나, 치사율면에 있어서는 주간이 1.9%인데 반하여 야간은 2.4%로 나타나, 야간의 사고가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야간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18 도로선형별 교통사고

(단위: 건, %, 명)

구분 / 도로선형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주	야		구성비	주	야		구성비	주	야
총 계			223,552	100	122,272	101,280	4,762	100	2,316	2,446	337,497	100	184,065	153,432
커브·곡각	소 계		13,868	6.2	8,189	5,679	858	18	455	403	21,752	6.4	13,371	8,381
	좌	오르막	1,227	0.5	720	507	60	1.3	30	30	1,853	0.5	1,143	710
		내리막	1,443	0.6	876	567	117	2.5	69	48	2,266	0.7	1,445	821
		평지	3,732	1.7	2,139	1,593	237	5	123	114	5,652	1.7	3,323	2,329
	우	오르막	1,482	0.7	888	594	78	1.6	45	33	2,432	0.7	1,528	904
		내리막	1,658	0.7	1,056	602	138	2.9	79	59	2,868	0.8	1,912	956
		평지	4,326	1.9	2,510	1,816	228	4.8	109	119	6,681	2	4,020	2,661
직선	소 계		205,958	92.1	111,789	94,169	3,857	81	1,834	2,023	311,100	92.2	167,876	143,224
	오르막		9,115	4.1	4,887	4,228	211	4.4	91	120	13,817	4.1	7,420	6,397
	내리막		11,884	5.3	6,783	5,101	351	7.4	168	183	19,033	5.6	11,051	7,982
	평지		184,959	82.7	100,119	84,840	3,295	69.2	1,575	1,720	278,250	82.4	149,405	128,845
기 타			3,726	1.7	2,294	1,432	47	1	27	20	4,645	1.4	2,818	1,827

나. 도로 노폭별 교통사고

교통사고 현황을 도로 노폭별로 구분하면 3m 이상 6m 미만 도로에서 59,984건(2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m이상 9m미만 도로에서 39,193건(17.5%)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을 노폭별로 분석해 보면 3m 이상 6m 미만 도로에서 1,357명(28.5%, 치사율 2.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6m 이상 9m 미만 도로 915명(19.2%, 치사율 2.3%), 13m 이상 20m 미만 도로 793명(16.7%, 치사율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9 노폭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 명)

구 분 / 도로폭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구성비	치사율		구성비
계	223,552	100	4,762	100	2.1	337,497	100
3m 미만	18,424	8.2	395	8.3	2.1	25,868	7.7
3m 이상 6m 미만	59,984	26.8	1,357	28.5	2.3	86,324	25.6
6m 이상 9m 미만	39,193	17.5	915	19.2	2.3	57,694	17.1
9m 이상 13m 미만	29,614	13.2	524	11	1.8	45,924	13.6
13m 이상 20m 미만	36,857	16.5	793	16.7	2.2	58,505	17.3
20m 이상	30,015	13.4	663	13.9	2.2	50,748	15
기 타	9,465	4.2	115	2.4	1.2	12,434	3.7

다. 기상 상태별 교통사고

기상 상태별로 분석해 보면 맑은 날씨에 192,007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의 85.9%를 차지하였다.

특히, 안개가 낀 날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47건으로 전체 사고의 0.2%에 불과하지만 26명이나 목숨을 잃어 치사율 7.5%로 평균 치사율 2.1%의 3.6배가 넘어, 운전자는 안개 발생 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0 기상 상태별 교통사고와 치사율

(단위: 건, %, 명)

기상별 / 구분	계	맑음	흐림	비	안개	눈	기타
사고건수	223,552	192,007	9,682	17,456	347	1,988	2,072
구성비	100.0	85.9	4.3	7.8	0.2	0.9	0.9
사망자	4,762	3,825	364	460	26	51	36
구성비	100.0	80.3	7.6	9.7	0.5	1.1	0.8
부상자	337,497	288,297	14,805	27,657	602	3,299	2,837
구성비	100.0	85.4	4.4	8.2	0.2	1.0	0.8
치사율	2.1	2.0	3.8	2.6	7.5	2.6	1.7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피해 현황

1. 교통사고 피해현황 총괄

2014년 한 해 동안 223,5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3년에 비해 발생건수는 3.8%, 부상자는 337,497명으로 2.7% 증가하였으나, 사망자는 4,762명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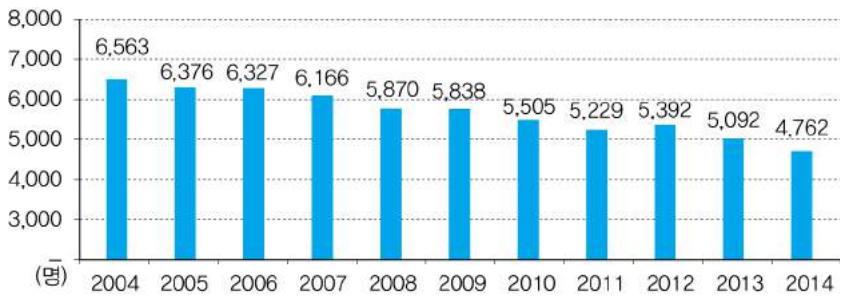

그림 2-10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명(10만명당), 1.1명(1만대당)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주요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연 도	2012	2013	2014	2012	2012	2012	2012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10.8	10.1	9.4	10.7	4.1	5.8	4.1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	2.4	2.2	2.0	1.3	0.6	0.9	0.6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아울러,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큰 불행임은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며,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을 준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2년 기준 13조 1,383억원(도로교통공단 추계)에 달한다.

2. 직업별 피해현황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4,762명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회사원이 전체의 41.4%인 1,3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상자도 회사원이 140,322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표 2-22 **직업별 사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 직업		사상자 수	구성비	사망자	구성비	부상자	구성비	사망률
계		342,259	100	4,762	100	337,497	100	1.4
취학전 아동	미취학원아	4,324	1.3	19	0.4	4,305	1.3	0.4
	유치원아	1,821	0.5	8	0.2	1,813	0.5	0.4
초등학생	1학년	1,628	0.5	7	0.1	1,621	0.5	0.4
	2학년	1,469	0.4	2	0	1,467	0.4	0.1
	3학년	1,470	0.4	5	0.1	1,465	0.4	0.3
	4학년	1,180	0.3	2	0	1,178	0.3	0.2
	5학년	1,207	0.4	4	0.1	1,203	0.4	0.3
	6학년	1,257	0.4	3	0.1	1,254	0.4	0.2
중학생		4,892	1.4	17	0.4	4,875	1.4	0.3
공무원		4,585	1.3	32	0.7	4,553	1.3	0.7
회사원		141,681	41.4	1,359	28.5	140,322	41.6	1.0
자영업		47,803	14	1,172	24.6	46,631	13.8	2.5
군 인		1,575	0.5	23	0.5	1,552	0.5	1.5
주 부		20,777	6.1	164	3.4	20,613	6.1	0.8
무 직		29,961	8.8	941	19.8	29,020	8.6	3.1
고등학생		8,803	2.6	84	1.8	8,719	2.6	1.0
대학생 이상		8,875	2.6	63	1.3	8,812	2.6	0.7
기타/불명		58,951	17.2	857	18	58,094	17.2	1.5

자료: 경찰청
사망률 = (사망자 수/사상자 수)×100

3. 연령별(어린이·노인) 피해현황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71세 이상이 1,332명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483명(10.1%), 46세 이상 50세 미만이 357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비를 보면 사망자 4,792명 중 남자가 3,447명으로 72.4%, 여자가 1,310명으로 27.5%를 차지하여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표 2-23 **성별·연령별 사망자**

(단위: 명)

구분 \ 연령		6세 이하	7~12	13~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5~70	71세 이상	계
사망자		29	23	226	183	206	231	205	277	357	460	461	289	483	1,332	4,762
구성비		0.6	0.5	4.7	3.8	4.3	4.9	4.3	5.8	7.5	9.7	9.7	6.1	10.1	28.0	100.0
성별	남	19	12	187	148	175	191	178	228	301	357	356	201	313	781	3,447
	여	10	11	39	35	31	40	27	49	55	102	103	87	170	551	1,310
	불명	0	0	0	0	0	0	0	0	1	1	2	1	0	0	5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대비 6.5% 감소하였고, 연령별로 분석하면 7세 이상 13세 이하가 39.5%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71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3.9% 증가하였다.

표 2-24 **연령층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연령층 \ 연도별	2013	2014	증감수	증감율(%)
총 계	5,092	4,762	-330	-6.5
6세 이하	44	29	-15	-34.1
7 ~ 13세	38	23	-15	-39.5
14 ~ 20세	223	226	3	1.3
21 ~ 25세	242	183	-59	-24.4
26 ~ 30세	236	206	-30	-12.7
31 ~ 35세	247	231	-16	-6.5
36 ~ 40세	247	205	-42	-17.0
41 ~ 45세	302	277	-25	-8.3
46 ~ 50세	408	357	-51	-12.5
51 ~ 55세	497	460	-37	-7.4
56 ~ 60세	459	461	2	0.4
61 ~ 64세	316	289	-27	-8.5
65 ~ 70세	551	483	-68	-12.3
71세 이상	1,282	1,332	50	3.9

한편 2014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2,110건, 52명이 사망하고 14,89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2013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3.3%, 부상자는 3.2%가 증가하였으나, 사망자는 -36.6%로 대폭 감소하였다.

노인 교통사고는 33,170건, 1,815명 사망하고 35,35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사고건수 9.5%, 부상 9.9%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1.0%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사망자 4,762명중 노인사망자가 38.1%인 1,815명으로 노인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2-25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3년	11,728	82	14,437	30,283	1,833	32,178
2014년	12,110	52	14,894	33,170	1,815	35,352
대비(%)	3.3	-36.6	3.2	9.5	-1.0	9.9

4. 자동차 종별 피해현황

교통사고 사망자를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가 2,380명으로 50.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화물차 1,073명(22.5%), 이륜차 392명(8.2%),승합차 356명(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6 제1당사자의 자동차 종류별 교통사고

(단위: 건, 명, %, 대)

구분 / 당사자	사고건수	구성비	사망자	구성비	부상자	구성비	치사율	자동차수
계	223,552	100	4,762	100	337,497	100	2.1	23,853,034
승용	148,070	66.2	2,380	50.0	230,511	68.3	1.6	15,747,171
승합	15,623	7.0	356	7.5	26,259	7.8	2.3	947,012
화물	28,250	12.6	1,073	22.5	43,418	12.9	3.8	3,353,683
특수	879	0.4	56	1.2	1,389	0.4	6.4	70,089
이륜	11,758	5.3	392	8.2	13,899	4.1	3.3	2,136,085
원동기	6,655	3.0	221	4.6	7,664	2.3	3.3	-
자전거	5,975	2.7	93	2.0	6,328	1.9	1.6	-
기타	6,342	2.8	191	4.0	8,029	2.4	3.0	1,598,994

※ 자동차 기타 : 건설기계 415,722대, 농기계 1,183,272대 (2005년부터 자동차 등록대수에 건설기계, 농기계 포함)

차종별로 세분하면 특수자동차는 보유대수가 전체 23,853,034대(이륜자동차 포함)의 0.29%인 70,089대에 불과하나 사망자는 1.2%인 56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8.0명이 사망하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전체평균 2.0명의 4.0배에 이르는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승합자동차는 전체 자동차대수의 4.0%인 947,012대에 불과하나 사망자수는 7.5%인 356명으로 자동차 1만대를 기준으로 할 때 3.8명이 사망하였다. 화물자동차도 전체 자동차대수의 14.1%인 3,353,683대를 차지하나 사망자수는 22.5%인 1,073명이나 되며, 자동차 1만대를 기준으로 할 때 3.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종은 특수자동차와 승합 및 화물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승용차는 전체차량의 66.0%인 15,747,171대이며 사망자는 50.0%인 2,380명으로 1만대당 1.5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종별 치사율을 보면 특수차가 6.4%로 가장 높고, 화물차 3.8%, 이륜차·원동기 3.3%의 순으로 특수차, 화물차, 이륜차, 원동기의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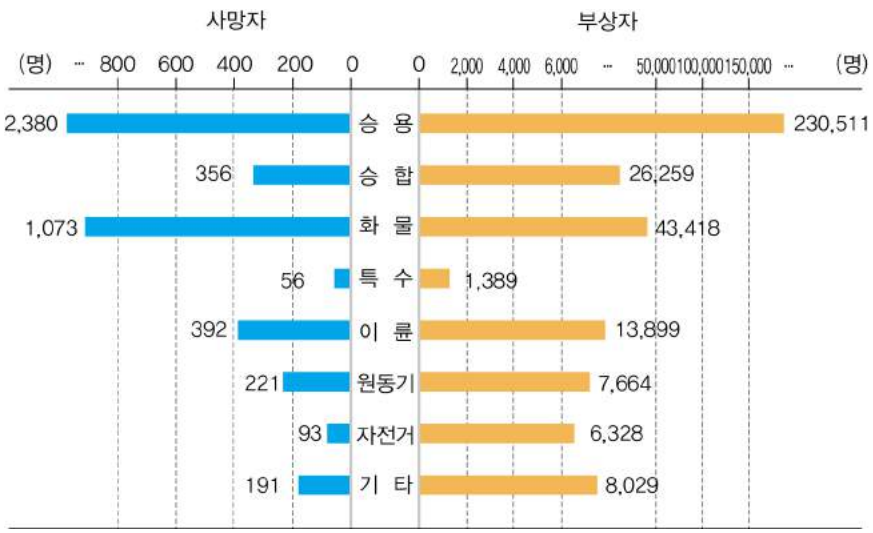

그림 2-11 자동차 종별 사상자

5. 요일별 피해현황

2014년에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 중 사망자수 4,762명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월요일이 6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상자는 토요일이 53,4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건수는 금요일이 34,585건(15.5%)이 가장 많고, 일요일이 26,477건(11.8%)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요일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명, %, 건)

구 분 \ 요 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사망자 수	4,762명	611	699	678	689	699	696	690
구성비	100.0	12.8	14.7	14.2	14.5	14.7	14.6	14.5
요일별	1일평균	11.7	13.4	13.0	13.2	13.4	13.3	13.2
사고건수	223,552건	26,477	31,697	31,819	33,256	32,279	34,585	33,439
부상자 수	337,497명	44,108	46,495	46,660	48,537	47,444	50,851	53,402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망자를 요일별로 보면 전체 어린이 사망자 52명중 일요일이 21명(40.4%)으로 가장 많고, 화·수·금요일이 3명씩(5.8%) 사망하여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요일별 어린이 사망자

(단위: 명, %)

구 분 \ 요 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사망자수	52	21	8	3	3	7	3	7
구성비	100.0	40.4	15.4	5.8	5.8	13.5	5.8	13.5

6. 시간대별 피해현황

시간대별로는 18시에서 20시 사이에 598명이 사망하여 전체의 12.6%로 가장 높고, 16시에서 18시 사이에 443명(9.3%), 20시에서 22시 사이에 각각 430명(9.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02시에서 04시 사이에 283명(5.9%)으로 가장 낮았다.

부상자 수도 18시에서 20시 사이에 12.8%로 가장 높았고, 04시부터 06시 사이에 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29 시간대별 인명피해

(단위: 명, %)

구분 \ 시간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사 망	4,762	324	283	384	429	314	360	366	404	443	598	430	427
구성비	100	6.8	5.9	8.1	9.0	6.6	7.6	7.7	8.5	9.3	12.6	9.0	9.0
부 상	337,497	20,758	12,329	10,596	20,086	30,975	28,789	30,857	34,928	38,430	43,248	35,395	31,106
구성비	100	6.2	3.7	3.1	6.0	9.2	8.5	9.1	10.3	11.4	12.8	10.5	9.2

7. 사고시 상태별·유형별 피해현황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행 중 또는 자동차 승차 여부 등 도로이용 상태별로 분석해 보면 보행 중에 사망한 사람이 1,910명(40.1%), 자동차에 탑승 중이던 사람이 1,543명(32.4%), 이륜차에 승차 중이던 사람이 887명(18.6%),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이 272명(5.7%)으로 나타났다.

표 2-30 사고시 상태별 사상자

(단위: 명, %)

연령층 \ 상태별	계		자동차승차중		이륜차승차중		자전거승차중		보행중		기 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사망	4,762	100.0	1,543	32.4	887	18.6	272	5.7	1,910	40.1	150	3.1
부상	337,497	100.0	229,042	67.9	37,279	11.0	15,517	4.6	51,646	15.3	4,013	1.2

사고 유형별로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차량·사람·철길건널목 또는 구조물 등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757명(78.9%)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등이 단독으로 전복되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005명(21.1%)이다.

충돌사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차와 차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1,143명(40.2%)으로 가장 많고, 차와 사람이 1,843명(38.7%)이었다.

표 2-31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

	사망자(명)	구성비(%)
총계	4,762	100
차대사람	1,843	38.7
차대차	1,914	40.2
차량단독	1,005	21.1
차대열차	0	0.0

자료: 경찰청

표 2-32 사고 유형별 피해현황

(단위: 건, %, 명)

사고유형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구성비	주	야	계	구성비	주	야	계	구성비	주	야
총 계			223,552	100	122,272	101,280	4,762	100	2,316	2,446	337,497	100	184,065	153,432
차대사람	소 계		50,315	23	26,019	24,296	1,843	39	715	1,128	51,590	15	26,524	25,066
	횡단중		17,544	8	8,784	8,760	883	19	312	571	17,838	5	8,879	8,959
	차도통행중		3,059	1	1,451	1,608	146	3	45	101	3,061	1	1,447	1,614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2,872	1	1,519	1,353	80	2	38	42	2,950	1	1,553	1,397
	보도통행중		2,188	1	1,240	948	45	1	21	24	2,365	1	1,311	1,054
	기 타		24,652	11	13,025	11,627	689	15	299	390	25,376	8	13,334	12,042
차대차	소 계		162,181	73	90,674	71,507	1,914	40	1,082	832	272,147	81	150,502	121,645
	정면충돌		5,840	3	3,103	2,737	259	5	151	108	11,087	3	6,110	4,977
	측면직각충돌		56,935	26	32,880	24,055	555	12	354	201	92,300	27	52,474	39,826
	추돌	진행중	24,783	11	13,675	11,108	309	7	153	156	45,760	14	25,486	20,274
		주정차중	18,245	8	8,566	9,679	195	4	79	116	35,650	11	16,769	18,881
	기 타		56,378	25	32,450	23,928	596	13	345	251	87,350	26	49,663	37,687
차량단독	소 계		11,054	5	5,578	5,476	1,005	21	519	486	13,758	4	7,038	6,720
	전도 / 전복		1,558	1	825	733	226	5	130	96	2,048	1	1,105	943
	공작물충돌		4,292	2	1,763	2,529	462	10	194	268	5,783	2	2,539	3,244
	주정차차량충돌		28	0	10	18	5	0	5	0	33	0	10	23
	이탈	추 락	385	0	223	162	102	2	66	36	506	0	290	216
		기타이탈	288	0	158	130	42	1	22	20	394	0	231	163
	기 타		4,503	2	2,599	1,904	168	4	102	66	4,994	2	2,863	2,131
건널목	소 계		2	0	1	1	0	0	0	0	2	0	1	1
	차단기돌파		0	0	0	0	0	0	0	0	0	0	0	0
	경보기무시		0	0	0	0	0	0	0	0	0	0	0	0
	직진진행		0	0	0	0	0	0	0	0	0	0	0	0
	기 타		2	0	1	1	0	0	0	0	2	0	1	1
구성비				100	54.7	45.3		100	48.6	51.4		100.0	54.5	45.5

8. 운전면허 취득 경과년수별 피해현황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경과년수별로 분석하면, 15년 초과 운전자의 치사율이 2.2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1년 초과 2년 이하 운전자는 치사율이 1.7로 다소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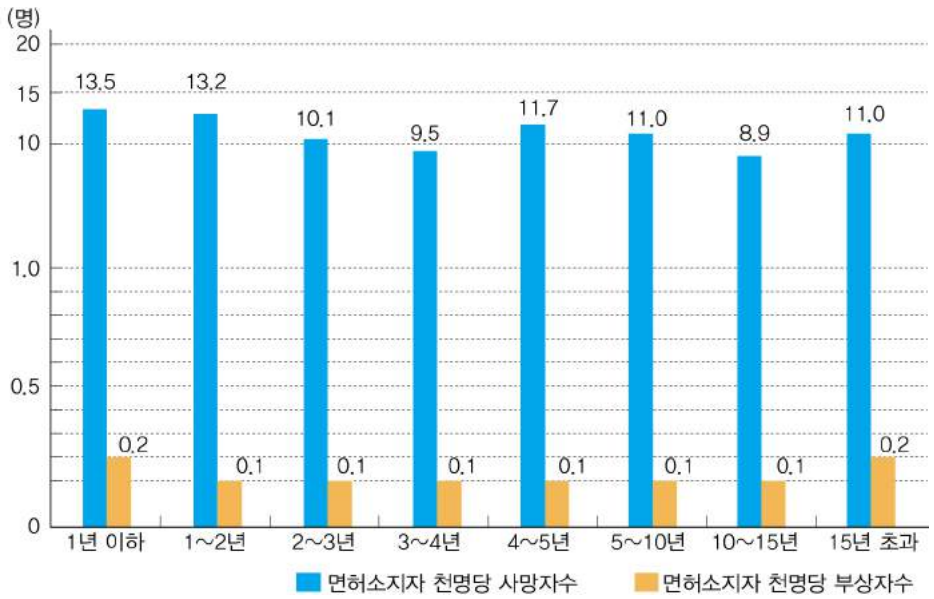

그림 2-12 운전면허 취득 경과년수별 면허소지자 천명당 사상자 수

표 2-33 운전면허 취득 경과년수별 교통사고

(단위: 건, %, 명)

구분 / 경과년수		사고(건)	사망(명)	치사율	부상(명)	면허소지자	면허소지자 1,000명당 사고	사망	부상
총 계		223,552	4,762	2.1	337,497	29,544,245	7.6	0.2	11.4
5년 이하	소 계	36,476	685	1.9	56,739	4,966,778	7.3	0.1	11.4
	1년 이하	8,373	162	1.9	12,879	954,339	8.8	0.2	13.5
	1년 초과 2년 이하	6,963	116	1.7	10,875	825,669	8.4	0.1	13.2
	2년 초과 3년 이하	7,955	170	2.1	12,429	1,228,952	6.5	0.1	10.1
	3년 초과 4년 이하	6,766	123	1.8	10,554	1,105,169	6.1	0.1	9.5
	4년 초과 5년 이하	6,419	114	1.8	10,002	852,649	7.5	0.1	11.7
5년 초과 10년 이하		29,410	624	2.1	45,918	4,174,237	7.0	0.1	11.0
10년 초과 15년 이하		33,736	724	2.1	51,697	5,784,269	5.8	0.1	8.9
15년 초과		106,371	2,321	2.2	161,150	14,618,961	7.3	0.2	11.0
기 타		17,559	408	2.3	21,993	–	–	–	–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2014년 한 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58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6%에 불과하나, 사망자는 273명으로 전체의 5.7%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3.2%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고속도로 교통사고

표 2-34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단위: 건, 명, %)

구분 \ 연도		200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건	전년대비 %	10년간 연평균 증감율
고속도로	사고건수	4,941	3,610	3,748	3,924	3,800	3,550	3,231	3,583	352	10.9	-3.2%
	사망	502	409	397	389	282	371	298	273	-25	-8.4	-5.9%
전국	사고건수	220,755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8,198	3.8	0.1%
	사망	6,563	5,870	5,838	5,505	5,229	5,392	5,092	4,762	-330	-6.5	-3.2%

1. 사고 유형별

고속도로는 도로의 특성상 차대차 사고가 전체의 91.0%인 3,26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고 유형을 보면 추돌사고가 36.4%로 가장 많고, 측면 충돌사고가 17.6%, 추돌 주·정차중이 12.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차대차사고가 64.5%, 차량단독사고 25.3%, 차대사람 사고가 10.3%로 나타났다.

표 2-35 고속도로의 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명)

구분 / 사고유형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구성비		중상	경상	부상신고
총 계			3,583	100	273	100	8,578	2,436	5,704	438
차대사람	소 계		97	2.7	28	10.3	108	61	44	3
	횡 단 중		14	0.4	4	1.5	12	7	5	0
	차도통행중		8	0.2	5	1.8	5	3	2	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중		3	0.1	2	0.7	10	1	9	0
	보도통행중		2	0.1	0	0	2	2	0	0
	기 타		70	2	17	6.2	79	48	28	3
차대차	소 계		3,261	91.0	176	64.5	8,057	2,162	5,507	388
	정면충돌		33	0.9	10	3.7	76	37	31	8
	측면직각충돌		631	17.6	17	6.2	1,379	371	974	34
	추 돌	진행중	1,304	36.4	67	24.5	3,387	869	2,345	173
		주정차중	445	12.4	32	11.7	1,206	293	857	56
	기 타		848	23.7	50	18.3	2,009	592	1300	117
차량단독	소 계		225	6.3	69	25.3	413	213	153	47
	전도/전복		46	1.3	17	6.2	101	60	28	13
	공작물충돌		128	3.6	39	14.3	250	115	106	29
	주정차차량충돌		0	0	0	0	0	0	0	0
	이 탈	추락	4	0.1	6	2.2	0	0	0	0
		기타이탈	1	0	0	0	1	1	0	0
	운전자부재		0	0	0	0	0	0	0	0
	기타		46	1.3	7	2.6	61	37	19	5

2. 법규위반 내용별

고속도로에서 법규위반내용별 사고를 보면 총 사고 3,231건 중 운전자법규위반이 3,230건으로 운전자 과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규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2,339건(72.4%)으로 일반도로와 같이 가장 많고, 다음은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거리미확보 645건(20.0%), 차선위반(진로변경) 97건(3.0%), 중앙선침범 61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법규위반내용별 사고를 보면 총 사고 3,583건 중 운전자법규위반이 3,582건으로 운전자 과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규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2,580건(72.0%)으로 일반도로와 같이 가장 많고, 다음은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거리미확보 728건(20.3%), 차선위반(진로변경) 133건(3.7%), 중앙선침범 55건(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6 고속도로의 법규위반 내용별 인명피해 현황

(단위: 건, %, 명)

구분 / 법규위반		사고건수	구성비	사망	구성비	부상	구성비
총 계		3,583	100	273	100	8,578	100
운전자법규위반	계	3,582	100	273	100	8,577	100
	과 로	1	0	0	0	10	0.1
	과 속	22	0.6	8	2.9	59	0.7
	앞지르기방법위반	4	0.1	0	0	11	0.1
	앞지르기금지위반	1	0	0	0	1	0
	중앙선침범	55	1.5	10	3.7	120	1.4
	신호위반	10	0.3	0	0	29	0.3
	안전거리미확보	728	20.3	16	5.9	2,074	24.2
	일시정지위반	1	0	0	0	1	0
	부당한회전	4	0.1	0	0	7	0.1
	우선권양보불이행	0	0	0	0	0	0
	진로양보불이행	1	0	0	0	3	0
	안전운전불이행	2,580	72.0	239	87.5	5,911	68.9
	난폭운전	0	0	0	0	0	0
	교차로운행방법위반	0	0	0	0	0	0
	보행자보호의무위반	0	0	0	0	0	0
	차선위반(진로변경)	133	3.7	0	0	273	3.2
	직진우회전진행방해	0	0	0	0	0	0
	철길건널목통과방법	0	0	0	0	0	0
	긴급차피양의무위반	0	0	0	0	0	0
	기 타	42	1.2	0	0	78	0.9
정비불량		1	0	0	0	1	0
보행자과실		0	0.0	0	0.0	0	0.0

자료: 경찰청

사망자수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239명(87.5%)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침범 10명(3.7%), 안전거리미확보 16명(5.9%),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상자에 있어서도 안전운전불이행이 5,911명(68.9%)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미확보 2,074명(24.2%), 차선위반 273명(3.2%)이 그 뒤를 이었다.

3. 노선별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891건으로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2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408건(11.4%), 영동고속도로 362건(10.1%), 서해안고속도로 288건(8.0%)의 순이었다.

표 2-37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 명)

구분 / 노선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1㎞당		구성비		중상	경상	부상신고
계	3,583	100.0	0.9	273	100.0	8,578	2,436	5,704	438
경 부	891	24.9	2.1	51	18.7	2418	639	1602	177
남 해	184	5.1	0.7	15	5.5	410	132	268	10
88 올림픽	54	1.5	0.2	10	3.7	122	31	91	0
서해안	288	8.0	0.9	25	9.2	767	201	535	31
울 산	18	0.5	1.3	4	1.5	30	9	18	3
평택 화성	16	0.4	0.8	1	0.4	28	11	17	0
익산-포항	39	1.1	0.3	7	2.6	73	30	43	0
호 남	186	5.2	0.7	27	9.9	428	95	321	12
순천 완주	36	1.0	0.3	2	0.7	72	30	42	0
당진 영덕	46	1.3	0.3	9	3.3	86	40	41	5
중 부	205	5.7	0.6	20	7.3	490	148	311	31
제2중부	12	0.3	0.4	0	0.0	33	7	26	0
평택 제천	43	1.2	0.4	8	2.9	88	37	47	4
중부 내륙	167	4.7	0.6	26	9.5	390	113	271	6
영 동	362	10.1	1.5	13	4.8	884	250	594	40
중 앙	151	4.2	0.4	13	4.8	330	135	184	11
서울 양양	63	1.8	0.8	0	0.0	165	37	122	6
동 해	24	0.7	0.2	1	0.4	41	12	28	1
서울외곽순환	408	11.4	3.2	8	2.9	865	217	607	41
남해제1지선	13	0.4	0.8	0	0.0	36	7	28	1
남해제2지선	38	1.1	1.9	6	2.2	65	30	30	5
제2경인	54	1.5	1.1	5	1.8	103	34	62	7
경 인	87	2.4	3.8	6	2.2	158	40	114	4
인천국제공항	24	0.7	0.7	2	0.7	62	29	31	2
서천 공주	6	0.2	0.1	1	0.4	16	9	7	0
평택 시흥	21	0.6	0.5	1	0.4	79	13	35	31
용인 서울	36	1.0	1.6	1	0.4	59	21	36	2
호남선의지선	31	0.9	0.6	3	1.1	82	21	59	2
고창담양	10	0.3	0.2	2	0.7	27	13	13	1
대전남부순환	7	0.2	0.5	0	0.0	29	10	19	0
수도권제2순환	11	0.3	0.6	0	0.0	27	10	15	2
중부내륙지선	31	0.9	0.0	4	1.5	74	17	56	1
중앙지선	21	0.6	1.2	2	0.7	41	8	31	2

4. 시간대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사고발생 시간대별로 보면 16시에서 18시 사이가 409건으로 고속도로 전체 발생건수의 11.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06시에서 08시 사이에 33명 12.1%, 18시에서 20시 사이에 29명 10.6%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6시부터 18시 사이가 13.1%를 차지해 가장 높았는데, 주로 10시부터 20시까지 낮시간 및 퇴근시간대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8 고속도로 시간대별 인명피해

(단위: 건, 명, %)

구분 \ 시간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사고(건)	3,583	257	187	186	237	259	368	343	399	409	401	257	280
구성비	100	7.2	5.2	5.2	6.6	7.2	10.3	9.6	11.1	11.4	11.2	7.2	7.8
사망(명)	273	28	23	22	33	21	19	20	23	22	29	8	25
구성비	100	10.3	8.4	8.1	12.1	7.7	7.0	7.3	8.4	8.1	10.6	2.9	9.2
부상(명)	8,578	479	344	377	434	634	978	960	1,097	1,125	964	579	607
구성비	100	5.6	4.0	4.4	5.1	7.4	11.4	11.2	12.8	13.1	11.2	6.7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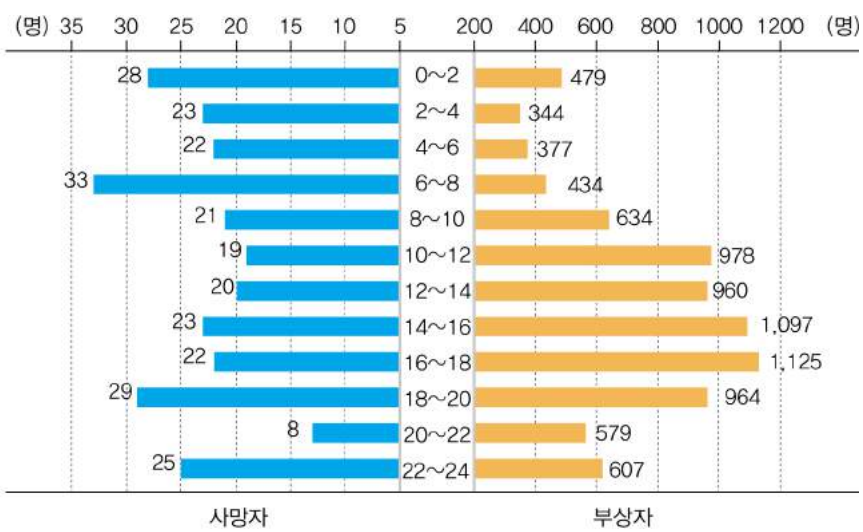

그림 2-14 시간대별 사망자 및 부상자

5. 차종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3,583건 가운데 제1당사자를 기준으로 차종별 교통사고를 분석하면 승용차가 전체의 64.4%인 2,308건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801건(22.4%), 승합차 252건(7.0%), 특수차 56건(1.6%)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고속도로의 차종별 사고발생 현황을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해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특수차에 의한 사고가 높은 반면, 승용차 사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대형 승합차 사고현장

표 2-39 제1당사자의 차종별 인명피해

(단위: 건, %, 명)

구 분	전국						고속도로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223,552	100	4,762	100	337,497	100	3,583	100	273	100	8,578	100
승 용	148,070	66.2	2,380	50.0	230,511	68.3	2,308	64.4	126	46.2	5,440	63.4
승 합	15,623	7.0	356	7.5	26,259	7.8	252	7.0	21	7.7	1,017	11.9
화 물	28,250	12.6	1,073	22.5	43,418	12.9	801	22.4	113	41.4	1,702	19.8
특 수	879	0.4	56	1.2	1,389	0.4	56	1.6	7	2.6	136	1.6
이 륜	11,758	5.3	392	8.2	13,899	4.1	4	0.1	1	0.4	4	0.0
원동기	6,655	3.0	221	4.6	7,664	2.3	1	0.0	1	0.4	0	0.0
기 타	12,317	5.5	284	6.0	14,357	4.3	161	4.5	4	1.5	279	3.3

6. 도로 구역별

도로 구역별 교통사고를 보면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의 65.7%가 주행차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앞지르기차로에서 11.1%, 운전자들이 방심하기 쉬운 톨게이트 부근에서도 7.2%, 유입·유출로에서 5.2%, 갓길에서 4.6%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주행차로와 앞지르기차로에서 각각 64.1%와 11.7%로 대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부상자 역시 동일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타나났다.

표 2-40 고속도로 차로(도로구역)별 교통사고

(단위: 건, %, 명)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성비		구성비		중상	경상	부상신고
계	3,583	100	273	100	8,578	2,436	5,704	438
주행차로	2,353	65.7	175	64.1	5,926	1,707	3,889	330
앞지르기차로	398	11.1	32	11.7	1,152	301	822	29
등판차로	19	0.5	3	1.1	34	18	16	0
가속/감속차로	26	0.7	2	0.7	42	15	25	2
유입/유출로	186	5.2	10	3.7	338	96	226	16
교차로	5	0.1	0	0.0	15	4	10	1
톨게이트부근	257	7.2	8	2.9	504	109	357	38
간이정류장	3	0.1	0	0.0	5	0	5	0
휴게소	104	2.9	3	1.1	176	46	122	8
갓길	166	4.6	20	7.3	286	102	174	10
기타	66	1.8	20	7.3	100	38	58	4